

2016년 10월 18일, 조천읍 신촌리 허재군씨 댁, 이현정 조사.
허재군(남, 1948년생, 조천읍 신촌리)

[제보자] 글썄? 그거는 그렇다지만 우리가 생각할 직, 허기에는, 게고 하나는 그, 한 가지 얘기는 그, 쉘뿔에 처서.

[조사자] 예.

[제보자] 응, 쉘뿔에 처서 어, 죽었다는 얘기는 그 촌에덜은 이제 곶으믄은 이제는 잘 그 것이 없주만은 옛날에는 이 촌에, 촌길에는 가름길에, 가름길에는 영, 골목 들어 가는 으 카드에 으만한 돌덜 이렇게 팡돌 놔가지고, 으만헌 높이로 헛어.

[조사자] 예.

[제보자] 게서 이제, 이렇게 영, 한 줄 영 놔진 디가 있어. 카드 영 들어가는 디, 그런 데 가 간간이 있는다고. 봄날씨가 딱 되니까 날은 따뜻하고 할아버지 한 분이 그, 그 돌우에다가 이렇게 앉아서 놓고 있으니까, 그 권제 받으려 다니던 스님이, 스님이. 권제, 권제란 말이 알지?

[조사자] 시주 받으려 다니는 거주마씨.

[제보자] 응, 시주 받으려, 권제 받으려 다니던 스님이 딱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 관상을 딱 본 거여. 지나가다가, 쑥 지나가다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, 할아버지한테 허는 얘기가

“영감님은 오늘 하루 앉아가지고, 쉘뿔에 처서 죽을 운이니까, 죽을 운이니 조심하세요.”

이렇게만 해두고 딱 가버린 거여. 이렇게만 딱해서 이제, 가 버리니까, 아 이거 좀 듣기가 좀 기분 나쁘단 말이여? 응? 그래서 이제, 그 할아버지가 오꼴허게 일어산 집에 들어강, 방에 강, 딱 앉았어. 옛날 문은 지금 곶으면 이제 미달이 문이주만, 옛날 문은 지겟문이라.

[조사자] 예.

[제보자] 여달이문으로, 여달이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, 벽장을 이렇게 대가, 대가지고

기대 앓안.

“미친놈, 내가 똥, 방안에 가만히 앓아 있으믄, 내가 왜 쉼뿔에 처서 죽어?”

게서 저, 가만히 이렇게, 앓아 있으니까 이제, 아 심심하고 막 귀가 간지러, 가려워. 그래가지구 이제는, 그 문 한 짝을 이렇게 열어가지구, 문 영 열어서 제껴 놓곡, 벽장 우에다가 그, 꺾밥 내는 것이 있었어. 그 꺾밥 내는 것이 있어가지구, 걸로 이렇게 이제, 이제, 귀가 가, 가려우니까 이렇게 그걸로 이제 꺾밥 내면서 이렇게 허다 보니까 바람이 와닥타허게 분 거여. 게, 문이 탁 닫아지믄서 그냥 꺾창 썬서, 썬서 죽언. 꺾밥 내는 것이 그거 쉼뿔로 만든 거여.

[조사자] 아, 그래서.

[제보자] 응. 그래서 쉼뿔로 처서 죽는다.

- 핵심어 : 쉼뿔, 팡돌, 스님, 권제, 죽을 운, 꺾밥